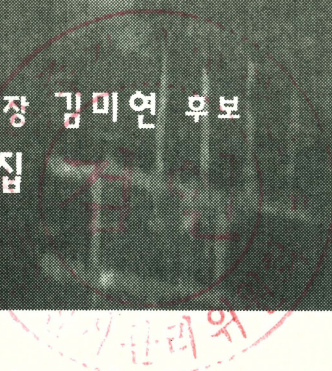


# 새천년 주체여성의 다부진 실천

민족경기 17대 총여학생회장 김미연 후보  
선거자료집



필레쫏

“한국 국민은 들쥐새끼와 같아서...

한국에는 민주주의가 적합한 제도가 아니다.”

- 전 주한미군사령관 위컴

우리들의 흰 쫏 아름다움엔  
이제 가시가 들혀 있어야 합니다.

시도 짜도 없이 함부로  
격으려 드는 냥새나는 손들에게  
우리는 이제 피흘림을 안겨주어야 합니다.

날이 갈수록 낫하는 짓이 없고  
낫하는 말이 없는  
철상가상의  
버릇없고 더러운 양키들에게

우리는 이제  
필레쫏 향기에 답아들 우리들의  
독한 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 내리비치

◆ 후보자 약력 소개

◆ 춤마의 변

◆ 추천글

◆ 생각하는 만화  
(2000년 국제 전범 법정)

◆ 17대가 드리는 약속

◆ 주한미군은 철거 되어야 한다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 성폭력 규제 학칙제정에 대한 담론

◆ 나의 사랑하는 대중조직 전여대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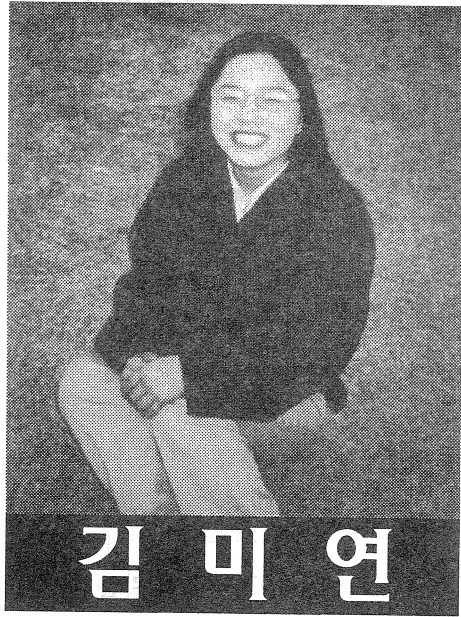
◆ 17대 총여학생회 선거 준비에  
함께한 사람들

◆ 전여대협 진군가

◆ 일정 광고.

## 후보자 약력

17대  
총여  
학생  
회장  
간  
후  
보



1976년 서울 출생

1995년 대진여고 졸업

1996년 우리학교 애국 영어영문학과 입학  
영문과 풍물패 부르외 활동

1997년 부르외 회장 역임  
중앙동아리 한소리 입회

1998년 영문과 학생회장 역임

1999년 영문과 연사부장

2000년 17대 총여학생회회장 입후보

### 출마의 변

8월보다 뜨겁게 살았던 겨울이 지나고 우리는 2000년 새봄을 맞이하였습니다. 비록 등록금도 마음 편히 못내는 어려운 현실이지만, 개강을 하여 새내기들과 재학생들로 북적거리는 경기교정을 보며 '희망'이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대학생활은 저에게 학문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느끼게 하였습니다. 수많은 사회의 모순을 느끼며 여성이라는 자각 또한 새롭게 하였습니다. 대학도 사회의 일부인 만큼, 상대적으로 진보적이고 자유롭다는 대학 안에서도 성차별적 요소가 엄연히 존재하고 분단이라는 현실속에서 여성의 삶은 더욱더 억압당하고 있습니다.

뿌리깊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에 서의 피해자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포함하기에 여성해방은 곧 남성해방이며 인간해방이 될 것입니다.

아는 만큼 실천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새세기 새천년 당당한 자주여성으로서 학우들과 함께 호흡하는 경기인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17대 총여학생회 회장 출마자  
예국 영문 4학년 김미연

## 추천의 글

미연 선배는 저에게 어떤 사람입니다.

### 첫 만남은...

저는 경기대학교를 입학하기 전에 처음으로 미연선배를 뵈게 되었습니다. 신입생 원서를 내려 왔을 때 지원학과를 물어보시고 저에게 친절하게 서양어문학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때 저는 벌써 경기대생이 되었다는 기분도 들었고, 정말로 이 선배와 학교를 같이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후 제가 원하는 바와 같이 미연선배와 같은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서 신체검사, 신입생 환영회, 새내기 배움터 등을 통해서 더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미연선배는 다른 아닌 저희 과 학생회장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받게 되었고, 저는 그 때 비록 작은 몸이지만 큰일을 할 수 있는 미연선배가 너무나 커 보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학교를 다니면서 미연선배의 모범을 따라 열심히 살아야 하겠다는 굳건한 마음가짐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 1년이 지나고...

1 학년을 지내면서 언제나 외로워하고 적응을 잘 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저에게 미연선배는 언제나 기동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이 멀어서 언제나 고생하고 말썽부리는 저를 힘든 내색 한번 하시지 않고 언제나 챙겨 줬습니다.

정말 미연선배가 학생회장이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선배를 존경을 할 줄 알고, 후배를 아껴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어서 언제나 밝은 모습으로 지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 함께 생활한 그 곳...

그 이후 방황하는 저에게 제일 먼저 소개를 해준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동아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학교 외에 다른 곳도 아닙니다. 그곳은 바로 우리 학교 동아리 건물 1층에 위치한 총여학생회였습니다.

처음에는 멀게만 느껴지고 무섭게 느껴진 곳이었지만 미연 선배를 통해서, 그리고 그 곳 총여학생회 집행부분들을 통해서 그곳은 먼 곳이 아니라 경기대학교 여학생이면 누구든지 관심을 가지고 들러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일어나는 여학생들의 차별과 성폭행, 그리고 사회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여성들의 악조건들 등등에 대해서 더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이라고 말하지만 아직 우리 여성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눈을 뜨게 해주신 분입니다.

### 그래서 미연선배입니다...

미연선배는 저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단지 선배로서 대학 생활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들을 비판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신 분입니다.

미연 선배는 정말로 여성들이 당하고만 있는 문제점들을 알고 있으며, 어떻게 그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게 할지도 알고 있을 겁니다.

저는 미연선배를 총여학생회 회장으로 추천합니다.

## 17대가 드리는 약속

★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며,  
자신의 운명과 세계를 기척합니다.**

### 1. 주한미군 철거 투쟁의 전면에서 서겠습니다.

- 전쟁책동 ; 해방군의 이름으로 들어와 오히려 남과 북의 대결을 부추기고 있는 주한미군.
- 경제적 측면 ; 주한미군 1년 지원비 50억달러  
(주한 미군이 없어진다면 우리는 초등 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다.)
- 공여지사용 ; 여의도의 약 62배에 달하는 땅을 공짜로 사용하며 환경 오염까지 저지르고 있다.
- 범죄집단 ; 하루 평균 6건, 연평균 2200건에 달하는 범죄를 저지름. (처벌은 단 0.7%뿐!)

▶ 그래서 우리는 매주 금요일을 반미의 날로 실천하겠습니다. (금요집회, 광장사업 등)

### 2. 일본군 성노예 문제 완전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 한 세기가 지나도 풀리지 않고 있는 이 문제는 단순히 배상의 차원이 아니라 민족의 자존심을 지켜내는 일이며, 더불어 전쟁시 짓밟혔던 여성의 인권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 그래서 우리는 2000년 12월에 있을 일군 성노예 국제 전범 법정에 적극 결합하겠습니다.

### 3. 새천년 통일 조국 건설에 앞장서겠습니다.

- 자주 교류 사업 ; 이북 여대생과의 편지 교류
- 광장사업 ; 이북바로알기 선전거리를 만들겠습니다.
- 국가보안법철폐 ; 통일의 걸림돌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을 벌여 내겠습니다.



#### 4. 사대매국, 반통일, 반민중, 반여성 김대중 정권을 심판하겠습니다.

##### ◎김대중정권 집권 3년동안 한 일

우리여성 살해한 주한미군에게 특별사면을!

일본군 성노예문제 해결 앓는 일본에게 독도 팔고 김치 팔고!

노동자에게 정리해고를!

농민에게는 농가부채를!

빈민에게는 강제철거를!

학생에게는 공안탄압을!

직장여성에게는 정리해고 0순위를!

▶ 김대중퇴진 투쟁을 힘있게 벌여 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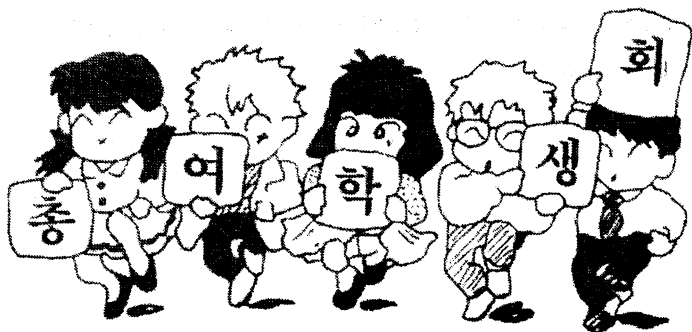
★ 세상의 절반,

그리고 50만 여학우를 위하여!

나<과여학생회>중여학생회<서울지역여대생협의회>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1. 6기 전여대협의 희망! 과여학생회를 건설,  
강화하겠습니다.

- 직장인 여학우협의회 건설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 수요집회, 금요집회 실천단을 꾸려 나가겠습니다.



## ★ 자주여성

- 당당한 그 이름으로 우리모두 함께

1. 900 여학우와 함께 하는 학원 자주화 투쟁을 만들어가겠습니다.

· 성폭력 학칙 제정

여학우의 85%가 합의했던 성폭력 규제학칙 제정 투쟁을 완강하게 벌이겠습니다.

· 여학우 복지

아씨방 (여학생 휴게실)을 생활,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 시키겠습니다.

· 독단적인 학사행정 손종국퇴진 투쟁에 함께 하겠습니다.

2. 900여학우의 목소리를 담아내겠습니다.

· 홈페이지 개설, 정기적인 화장실 유인물, 여백지, 여성신문 발행

· 우리 고유의 문화를 가꿔 나가겠습니다.  
(여성 문화제, 우리 차 마시기)

3. 각계각층 여성 민중의 힘을 모으겠습니다.

· 불합리한 제도 속에 착취당하고 소외 받는 여성들과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 주한 미군 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전국여성 농민 연합, 전국여성 노동 조합...)

**또한 미군의 천인공노할 만행! 경악입니다.!**  
**폭인 짚는 어디가고 ... 두 번에 걸친 폭음만 있을 뿐...**

“남과 북이 통일된 이후에도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하여야 한다”

얼마전 김대중 대통령이 늘어논 망발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벼락이 살해를 저지르고도 8.15특별사면으로 나오거나 처벌을 받지 않는 주한미군의 실체?

정말 해방군이며 분단된 우리나라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보디가드인가요?

반세기를 넘기고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오욕의 역사. 그 진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노근리 양민학살, 파주시 폭발물 사건 때 국민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먼저 피신했던 주한미군의 작태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디 그 뿐입니까? 윤금어씨, 신차금씨, 조중필학우, 이정숙씨 또한 2000년 들어 발생한 김성희씨와 서정만씨의 죽음을 통해서 패륜집단 주한미군의 범죄에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 평균 6건의 미군 범죄. 그렇다면 왜 처벌을 제대로 하지 못할까요?

그건 바로 한미행정협정 때문입니다.

한미행정협정은 쉽게 주한 미군의 법적인 지위를 규정한 협정을 말합니다. 국제법상으로 외국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의 법률질서를 따라야만 하며, 쌍방의 합의내에서 일정한 편의와 배려를 제공하게 되는데, 미군들의 편의와 배려의 차원을 넘어서 한국의 주권을 상실할 정도로 지나치게 불평등한 협정입니다.

살인죄의 미군속을 위해 수천만원을 들여 호화판 독방을 만든 서울 구치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불평등한지 봐요!

- ⇒ 한국정부의 재판권 행사 제한
- ⇒ 형사관할 범위의 지나친 확대
- ⇒ 범죄미군 구속수사 불가
- ⇒ 수감중인 미군도 요청하면 미국에 넘겨준다.
- ⇒ 한국의 사법제도와 행정제도를 무시하는 규정
- ⇒ 미군이 1심에서 무죄를 받으면 우리 검찰은 항소할 수 없다.



어떠세요?  
 믿겨지시나요?  
 미국에게 아부굴종하는  
 김대중 정권.

분단의 원흉인 주한미군을 이 땅에서 완전히 몰아내는 것이, 우리민족의 자주권을 되찾고 통일을 이룩하는 길입니다.

## 성폭력 규제 학칙제정을 위한 담론

**"나 자신이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경기의 주인인 900여학우 여러분  
6세의 여아부터 70년은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성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죠. 경기 내에서도 술자리나 과모임 뒤떨이 자리에서 비밀비재하게 일어난다고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랍니다.  
도서관에서 변태적 성추행을 했던 남학우가 신고되는 일, 그리고 바로 우리 과만 보더라도 은근히 술기운 빌어 벌어지는 성폭력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나 자신의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만약 성폭력의 피해자가 된 다라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술에 취한 선배가 성적인 농담이나 술자리에서 신체적 접촉을 한다든지, 또는 교수나 교직원어 불러내어 희롱하는 경우, 그 자리에서 불쾌한 감정을 그대로 말하고 그럴수 없는 상황이라면 과 선배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과여학생회 회장에게 고민을 말 하고 집단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고민들을 풀어갈 때는 피해학우의 심분을 보장에 주고, 가해학우에게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한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큰 상처를 주게 되는지를 느끼게 해야 합니다. 가해자 또한 단순히 처벌을 하거나 반성을 하는 차원이 아니라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한다는 의미가 중요하죠.

바로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며, 나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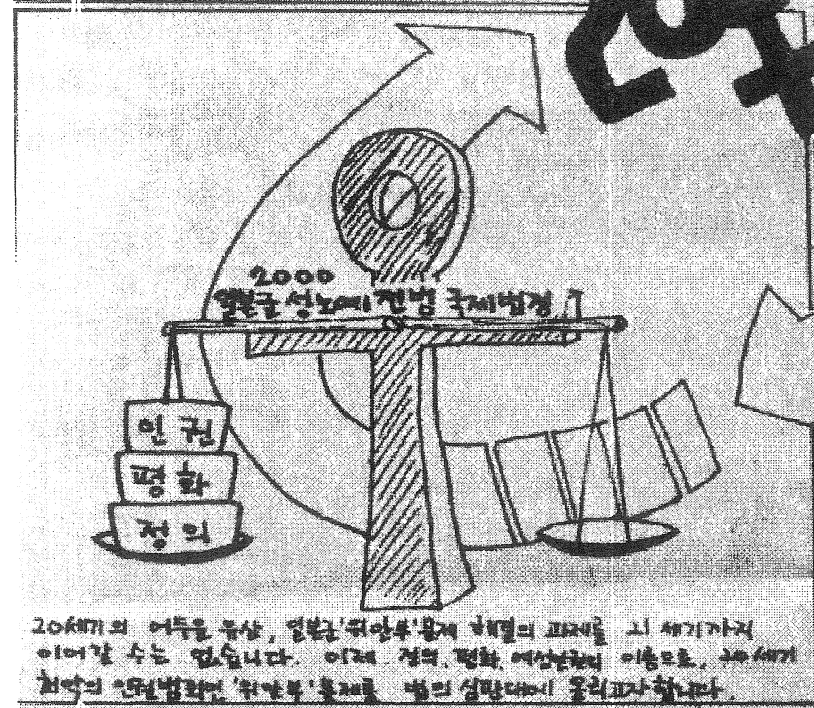
총여학생회는 여학우에게 빈번히 일어나는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지난 성폭력 규제 학칙제정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85%의 여학우와 73%의 경기학우가 성폭력 규제 학칙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900여학우, 나아가 2500 경기 학우의 힘이 모아졌을 때만이 교수, 교직원, 학생 모두에게 적용되는 성폭력 규제 학칙제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20세기



20세기의 어둠을 무상,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의 과정을 이 세기까지  
이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제 정의, 평화, 여성인권 이념으로, 20세기  
최악의 인권범죄인 '위안부' 문제를 법의 심판대에 올려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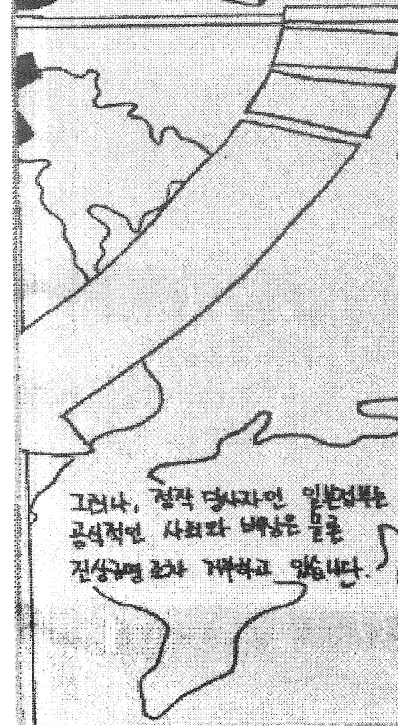
위안소에 머물러 있는 일본군 위안부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1991년 8월 14일 서울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여성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대회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8.14선언'이 채택되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1년 8월 14일 서울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여성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대회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8.14선언'이 채택되었습니다.

1991년, 한국의 여성단체들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전성국들과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사죄, 배상을 요구하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를 조직하였습니다.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지난 9년의 투쟁을 통해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정서적으로 알려졌고, UN, ILO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이 역사상 유례없는 이 참혹한 인권 범죄를 비난하고 일본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8.14선언을 통해 국제사회에 위안부 문제를 알리려는 노력은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8.14선언을 통해 국제사회에 위안부 문제를 알리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 50만 여학우의 조직

### 전여대협(전국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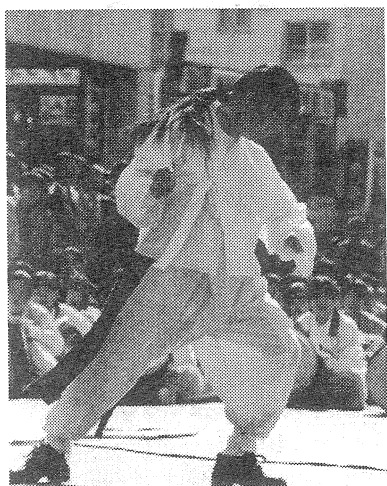
〈89년 건준위 1기부터 95년 출범후 5기까지의 역사〉

- 87년 서울 지역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 발족 이후 각 지역  
여대협 발족
- 88년 매춘 올림픽 반대 투쟁. 주한 미군철수를 중심으로  
에이즈 추방운동  
전국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 건설 준비 위원회 결성
- 90,91년 전여대협 간부 수련회. 취업차별 철폐투쟁. 지속적  
지역 교류사업
- 92년 김보은, 김진관 석방 투쟁. 성폭력 특별법 제정 투쟁  
전여대협 제 1기 통일 선봉대 활동
- 93년 윤금이씨 살해 미군 처벌 투쟁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 본부 공동 발족.
- 94년 양애리 학우 구명 운동. 정여대협 제 2기 통일선봉대  
활동. 한국대학 총학생회 연합 가입
- 95년 제1기 전국여대생 대표자 협의회 건설. 제3기 전여대  
협 통선대 활동  
정신대 문제 완전 해결을 위한 전여대협 일본 대사관  
항의 방문  
성폭력 상담 요운학교로 학내 성폭력 근절 운동
- 96년 정신대 문제 완전해결을 위한 국회청원 서명운동  
5.29 수요집회 전국 집중 투쟁  
4기 전여대협 통선대
- 97년 3기 전여대협 건설  
주한미군범죄 투쟁에 적극결합
- 98년 4기 전여대협 건설
- 99년 5기전여대협(민족경기 16대 총여학생회 회장 최선영).  
7기 전여대협 통선대 활동
- 2000년 6기 전여대협 건설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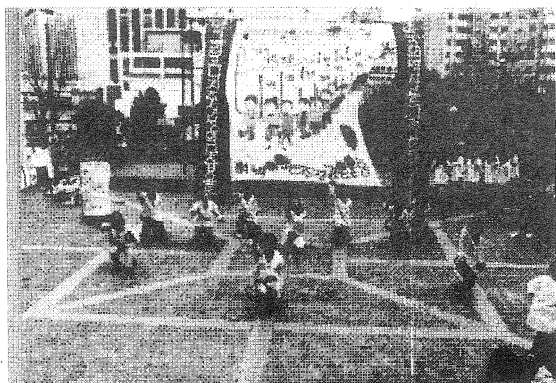


우리 사회에 뿌리 박혀 있는 성차별 의식인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와 자본주의의 속성인 성의 상품화로 인해 여성은 억압의 대상이 되었고 그런 사회의 현실을 한 개인이 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 총여학생회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모순들을 보다 조직적으로 집단적인 힘으로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기 위해 전국의 총여학생회가 연대를 하여 건설한 조직이 바로 전여대협입니다.



모순을 던지고  
당당히  
싸워라 그대  
여성 전사여



## 가로세로 낱말 맞추기!!

		■		♥		⑥	★
▲		①	×				
②							
	※		③			☒	
④							
						⑦	
→				⑧	♨		
					⑨		◎
⑤							

### 가로 맞추기

- ① 해방군의 이름으로 들어와서 온갖 범죄를 저지르는 집단
- ② 사대매국, 반동일, 반민중, 반여성 김대중 정권을 ○○ 하겠습니까. 는 각계각층 ○○민중의 힘을 모으겠습니다.
- ③ 김대중이 노동자에게 준 것은 이것뿐!
- ④ '전국여대생대표자 협의회'의 줄임말
- ⑤ 폐지되어야할 시대의 악법
- ⑥ 17대 총여학생회
- ⑦ 불합리한 ○○속에 착취당하고 소외 받는 여성들...
- ⑧ 17대 총여학생회 회장 후보는 어느 과 학우일까요?
- ⑨ 정기적인 ○○○ 유인물로 학우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 세로 맞추기

- ▲ 정치, 사상의 자유를 빼앗겨 감옥에 계신 분들
- 이북 여대생들과의 편지 교류를 통해 ○○교류를 실현하겠습니다.
- × 우리 나라와 미국이 맺은 불평등한 조약 (일명 SOFA)
- ♥ 매주 금요일은 ○○의 날
- ★ ○○○규제 학칙 제정 투쟁을 완강히 벌여 내겠습니다.
- ※ 주한 미군이 공짜로 쓰고 있는 땅을 일컫는 말  
→ 경기 학원 약의 근원은 바로 이사람! 몰아냅시다!!
- ♣ 총여에서 작년에 처음 실시된 대중 사업. 여성 ○○제.
- ☒ 미군이 한국전쟁 당시 뿌렸던 지독한 약품
- ◎ 수요집회, 금요일집회 ○○단!

도움말) 이번 17대 총여학생회 선거 자료집을 잘 살펴보  
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참고) 청담을 가지고 오시는 학우에게는 소정의 상품도  
드려요! (물론 선착순입니다.)

## 미연이와 함께하는 사람들



총여학생회 회장 후보 김미연(영문 96)

선거운동본부장 장인자(국문 97)

사무 김소영(경제 96)

총참모 이재은(경영 98)

자주국문참모 장한애(98)

예국영문참모 김경희(99) 최정은(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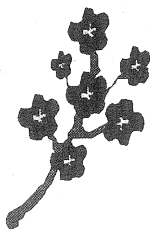
민족경제참모 이윤미(99)

해방법학참모 임소희(99)

진군토목참모 맹수정(98)

통일관경참모 노경애(99)

창조건축참모 김은정(98)



알려드립니다.

900여학우의 자주적 대중조직 총여학생회  
선거 유세가 있습니다.

**3월 24일 선날**

**자유광장**

**경기학우들이 가장 많은 늦은 5시**

투표는 당신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900여학우의 자주적 대중조직  
총여학생회 대망의 선거날짜

꼭 기억하세요!

3월 27일 ~ 29일 (달날 ~ 물날)

자유광장

이른 10시 ~ 늦은 11시까지